



광주시립미술관은 19일 3개월여만에 다시 문을 열고 관람객을 맞았다. 관람은 하루 세차례 예약제로 운영된다.

“오랜만의 미술관 나들이 즐겁네요”

광주시립미술관 3개월만에 재개관 ‘놀이가 미술이 될때’ ‘북경질주’ 마스크 필수...하루 3차례 예약제

어망과 건축자재로 그녀와 집을 만든 손봉주 작가의 작품 ‘동동동’. 재미난 작품을 둘러보면 엄마와 아이가 그녀에 앉아 사진을 찍는다. 한쪽에서는 블록 조립 작품 ‘앵무새 케이지’를 출품한 김계현 작가가 직접 제작한 블록을 짜맞추는 이들이 보인다. 조세민 작가의 ‘너에게, 나에게, 우리 모두와 함께’ 앞에 서면 내가 움직이는 대로 화면 속 고양이 나를 따라 움직이고, 최순임 작가의 대형 고양이 오르골 작품의 손잡이를 돌리면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온다.

19일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 전시장 풍경이다. 지난 2월 25일 문을 닫은 광주시립미술관이 3개월여만에 다시 문을 열고 관람객을 맞았다. 예약을 통해 이날 미술관 본관에 다녀간 관람객은 32명. 첫 관람객은 다섯살 딸 은서와 미술관을 찾은 송미(광주시 북구 용봉동)씨였고 미술관은 환영의 의미로 작은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송 씨는 “미술관 근처에 살고 있어 자주 미술관을 찾는데 재개관 소식에 예약을 했다”며 “놀이가 미술이 될 때”에서 아이와 꼬박 2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코로나 19 여파로 올해 준비했던 기획전을 오픈하지 못한 채 유튜브 등 온라인 전시로 대체해온 광주시립미술관은 전시 일정을 대거 조정해 재개관했다. 1층 1갤러리에서 열리는 ‘놀이가 미술이 될 때’ (7월26일)전은 이날 일반에게 첫 공개됐다. 미술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하나의 놀이이고, 완성된 작품은 또 하나의 놀이 공간이 되는 ‘참여형 전시’에는 모두 17명의 작가가 참여했고, 전시장 곳곳이 촬영 스팟인 유쾌한 전시다.

숨겨진 구름과 낙하산을 메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떠 있는 전시장 입구를 지나면 소녀와 고양이



오윤 작 '애비'



재개관 첫번째 관객인 송미씨가 축하 꽃바구니를 받고 있다.

가 다스곳이 앉아 있는 최순임의 ‘내가 지켜 줄게’를 만난다. 전시작 중 슈퍼맨과 배트맨 등 유명 만화 캐릭터가 수화어형 온 것 마냥 기념사진을 찍는 모스를 그린 성태진의 ‘석가탑’, 관람객이 직접 자기간의 이미지를 만들어보는 주홍 작가의 샌드메이션 작품, 사각형의 상자와 투명 아크릴을 이용한 미로 놀이 공간 ‘나가기 위해 들어가다’ (서혜영 작)도 눈길을 끈다. 그밖에 전시영·진영섭·오창근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3층 5·6갤러리에서 열리는 ‘북경질주’ (8월16일까지)전은 광주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북경창작센터 2018, 2019 입주작가들의 성과를 볼 수 있는 자리로 김정연·임용현·조현택(2018), 김경란·이창훈·임다인·조성태(2019) 작가가 참여해 평면회화, 사진, 영상, 설치 작품 40여점을 출품했다.

오픈 10여일만에 휴관, 관람객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광주시립미술관 신소장품 2019’은 7월26일까지로 연장해 전시한다.

올해 수집한 134점 중 일부를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판화 작품이 눈에 띈다. 오윤의 ‘애비’, ‘북춤’ 등 대표작들이 나왔고 김봉준의 ‘오월의 통곡’ 등도 눈길을 끈다. 임지순의 ‘무등산의 설경’, 양인옥의 ‘여인좌상’, 강연균의 ‘석류’, 허백련의 ‘기명절지’, 박은용의 ‘어머니의 땅’ 등을 비롯해 이만·허달용·김병택·송필용·이기원·서영실 작가 등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하정웅 미술관은 ‘불혹전’ (8월19일까지)을, 사진전시관은 ‘박일구의 바다로 가는 길’ (7월19일까지)을 열고 있다.

하반기 일정도 재편성했다. 배동신·양수아 작가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광주미술아카이브전’ (12월)을 비롯해 ‘불굴의 등반가 김홍빈 산악사진전’ (8월), ‘광주미술인 100인의 사진 기록’을 주제로 열리는 리일천 초대전 (11월) 등이 대기중이다. 또 5·18 40주년 기념전은 오는 8월15일 개막해 2020년 1월까지 이어지며 리암 길라잡이전은 내년으로 연기한다.

미술관은 예약제를 통해 하루 3차례 (오전 10시~12시·오후 1시~3시·오후 3시30분~5시30분)개방하며 본관은 일일 180명, 하정웅 미술관과 사진전시관은 일일 50명으로 제한한다. ‘문화가 있는 날’인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오후 8시까지 개장하며, 오는 27일은 6시부터 8시까지 한차례 휴스를 늘려 예약을 받는다. 입장객은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사람의 심리에서 오는 ‘정서적 따뜻함’

드영미술관 31일까지 ‘36.5℃’ 전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은 2020년 봄 기획전 시로 ‘36.5℃’전을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사람의 적정온도인 36.5℃를 감정의 적정온도로 설정하고, 이를 물리적 온도가 아닌 사람의 심리에서 오는 ‘정서적 따뜻함’이라고 가정해 기획했다. 전시는 ‘사람이 신체적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건강하듯 감정에 건강온도가 있지 않을까’하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서양화가 김해성·김수진 등 9명의 작가를 초청해 평면회화, 사진,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보여주는 이번 전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느껴지는 따스한 온도를 중심으로 한 ‘마주보다’와 자연을 통해 느껴지는 서정을 풀어낸 ‘바라보다’ 두 가지 주제로 기획했다.

백상욱 작가는 기억의 산물인 고무신 속에 과거에 대한 향수와 추억과 인물의 다양한 표정들을 담은 ‘休.Grand’ 작품을 선보이며 ‘현대 유물’에 대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이정기 작가는 자신의 부모님을 유물로 설정한 ‘시대의 유물_기록되는 삶(母)’을 전시한다.

또 버려진 공허한 공간과 빈집·빈방에 숨을 불어넣는 조현택 작가도 눈길을 끈다.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편안함을 전한다. 박상화 작가는 디지털 영상과 맵핑 스크린을 이용해 현대적 무용도원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미디어 아트 ‘사유의 정원_봄’을, 한부철



장용림 작 '숨-꽃이되다'

작가는 장독대, 투박한 사발, 꽃과 나무 등 일상에서 만나는 풍경들을 수채화로 그려낸 ‘담다’ 시리즈를 전시한다.

정정임 작가의 ‘梅月-나의심’은 매화꽃이 어우러진 평온한 풍경을 담은 작품이며 장용림 작가는 석채와 분채로 색채를 쌓아올린 화사한 작품 ‘숨-꽃이되다’를 선보인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미애

박정희

장호영

장희정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코지 판 투테’

23일 광주아트홀...우리말 공연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코지 판 투테’가 23일 오후 3시 광주아트홀에서 열린다.

이 공연은 중견 성악가로 구성된 한소리회가 주최하며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시, 광주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 제작됐다.

특히 해설을 통해 음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관객들에게 폭넓은 음악문화 향유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했다.

‘코지 판 투테’는 ‘여자는 다 그래’라는 뜻으로, 남녀 사이의 신뢰와 사랑 문제를 다루며 여자의 마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한다. 이날 무대는 해설과 함께 한국어 가사로 공연한다.

니콜리의 청년장교 굴리엘모와 웨란도는 늙은 철학자 돈 알폰소와 여자의 정절에 대해 토론하다 거액을 놓고 내기를 하게 된다. 돈 알폰소는 약혼녀들의 허녀 테스피나를 매수한 뒤 굴리엘모와 웨란도를 타기인으로 변장시켜 약혼녀들에게 소개시켜준다. 그녀들은 차츰 돈 많은 두 타기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두 청년은 자기 약혼녀들의 변심에 낙담한다.

박미애 광주대 교수가 총감독과 연출을 맡았으며 공연에는 소프라노 장희정·윤희정·한아름, 테너 장호영, 바리톤 김대수·권용만 등이 출연하고 박정희가 해설을 담당한다.

한편 지난 2000년 창단된 한소리회는 정기공연과 해외공연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엑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일요일 정상 영업**